

##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 고맙습니다



설령 사우회  
형편이 지금보  
다 더 어려워지  
더라도 이렇게  
든든한 사우들  
이 성원해주신  
다면 어떤 난관  
도 헤쳐 나가겠  
다는 각오를 스  
스로 다잡니다.

존경하는 사우회원 여러분!  
파란 하늘과 상쾌한 공기가 싱그러  
운 초여름에 건안들 하신지요.

사우회장의 중책을 맡은 게 엇그제  
같은데 벌써 상반기가 훌쩍 지났습니  
다. 사우회가 주관하는 네 가지 동호회  
행사(등산, 낚시, 골프, 바둑)와 창사  
29주년 단합대회는 회원님들의 적극  
적인 참여와 협조 덕분에 모두 성황리  
에 잘 마쳤습니다.

취임 초 기획했던 '발전기금 조성 추  
진위원회'는 김수량 위원장님의 열성  
적인 추진력과 임원들의 솔선수범에  
힘입어 순조롭게 출발했으며, 사우회  
보에 기사가 나가고 난 후 뜻있는 회원  
님들께서 앞 다투어 성금을 보내주서  
서 예상 금액을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  
다. '역시 MBC의 저력은 이 정도다'를  
다시 한 번 느끼면서 MBC사우회가  
자랑스럽고 사우회원 여러분들이 존  
경스럽습니다.

지난 달 KBS사우회 30주년 기념행  
사에 다녀왔습니다. 내년이면 30주년  
이 되는 우리 사우회로서 몇 가지 참조  
할만한 내용도 얻었습니다.

30년이라는 게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사우회가 잘  
가고 있는지' 이쯤에서 한번 짚고 넘어  
가자는 차원에서 본다면 나름 뜻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3차 이사회에서는 임원  
들을 중심으로 '창립30주년 기념행사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좋은 아이디  
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사우회원 여  
러분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  
탁드립니다.

해를 거듭하면서 우리의 관심은 누  
가 뭐래도 '건강'입니다. 모든 사우회  
원님들께서 즐겁고 건강한 나날을 보  
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 발전기금을 내주신 분들(5월 20일 이후)

- ▶ 유희근(보도) 100만원
- ▶ 김민식(고문) 50만원
- ▶ 김지현(업무) 50만원
- ▶ 김영기(기술) 40만원
- ▶ 김세하(기술) 30만원
- ▶ 이명세(관리) 20만원
- ▶ 최준식(보도) 20만원
- ▶ 이건식(관리) 20만원
- ▶ 김창동(관리) 10만원
- ▶ 박병선(편제) 10만원
- ▶ 오명환(편제) 10만원

- ▶ 박수부(업무) 100만원
- ▶ 이병훈(편제) 50만원
- ▶ 박웅곤(관리) 50만원
- ▶ 김강정(보도) 30만원
- ▶ 정 준(관리) 20만원
- ▶ 신낙균(편제) 20만원
- ▶ 정형진(관리) 20만원
- ▶ 김휴선(보도) 10만원
- ▶ 이현규(보도) 10만원
- ▶ 박연식(관리) 10만원
- ▶ 정진민(관리) 10만원



유희근



김민식



김지현



김영기



김세하



이명세



최준식



이건식



김창동



박병선



오명환



박수부



이병훈



박웅곤



김강정



정 준



신낙균



정형진



김휴선



이현규



박연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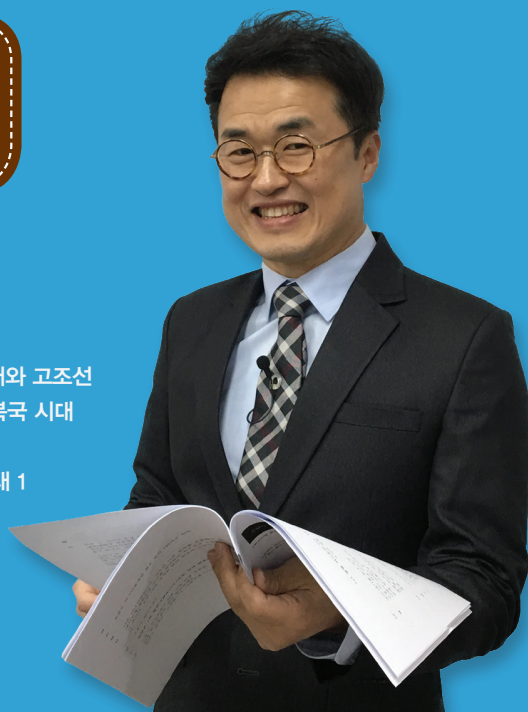
정진민

## 큰별★샘 최대성의 『초등 별★별 한국사』



### 초등 별★별 한국사 시리즈 (전7권)

- 1권 역사가 시작되고, 최초의 국가 고조선이 열린다\_ 선사 시대와 고조선
- 2권 삼국이 발전하고 남북국 시대가 열린다\_ 삼국 시대와 남북국 시대
- 3권 세계와 교류하며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다\_ 고려 시대
- 4권 유교 문화를 바탕으로 새 나라 조선이 세워진다\_ 조선 시대 1
- 5권 조선에 변화의 바람이 일다\_ 조선 시대 2
- 6권 근대 국가를 향해 나아가고 독립을 외치다\_ 근대
- 7권 시련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건설하다\_ 현대



## 사우회, (주)달아트투어와 업무협약을 맺다

7월 5일 사우회는 (주)달아트투어(대표이사 최노석)와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달아트투어는 크루즈여행 전문업체로, 최노석 대표는 1974년 문화경향 1기 기자로 입사했던 사우회원이다.

앞으로 사우회원이 크루즈 참가 신청을 해오면 '최대한 저렴하게 예약하며 VIP로 모시겠다'는 의지를 밝힌 최 대표는 사우회의 발전을 위해 수익금의 일정 부분을 발전기금으로 제공할 것도 약속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우회보에 게재된 광고를 참조하시고, 문의 사항은 달아트투어(02-2038-6668) 또는 사우회 사무처(02-722-7416)로 해도 된다.

## 2019년도 제3차 이사회 열려



6월 17일(월) 10시부터 2019년도 제3차 이사회가 사우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감사, 부회장, 이사 등 17명이 참석해서 6개 의안에 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고 의결을 했

다. 차인태 회장은 인사말에서 “봄철 단합대회가 원만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고, 발전기금 모금에 임원들이 앞장 서주셔서 고맙고, 성금을 주신 회원님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사회에서는 내년 사우회 창립 30주년을 대비한 행사 준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자랑스런 사우賞'과 '선배들이 주는 우수 프로그램賞' 제정도 의결했다.

## 봄철 바둑대회와 골프대회 마쳐

2019년도 봄철 사우회장배 친선 바둑대회가 5월 29일(수) 사우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30명의 기사들이 A,B조로 나뉘어 5시간 넘게 펼친 대국전에서 A조 우승은 이진섭(편제), 준우승 이상욱(관리), B조 우승 박병선(편제), 준우승 장용택(관리) 회원이 각각 차지했다.

수상자에게는 우승컵과 상품이, 참가자에게는 동회와 사무처에서 제공한 기념품과 선물이 전달됐다.

사우회 주관 봄철 **골프대회**는 5월 21일(화) 오전 춘천 오너스골프장에서 4팀 28명의 회원이 참가해



열렸다. 신페리오 방식으로 계산된 핸드캡을 적용하여 넷트 스코어 점수에 따라 수상자를 선정한 결과 김연두(관리) 회원이 넷트 스코어 71.0으로 우승했다.



준우승은 최근진(기술), 메달리스트 임무혁, 장려상 이명수, 김휴선, 행운상 이용구, 이은숙 회원이 각각 차지했다.

## 우리말도 못 지키는 언론



김 현 철(미주)

지난 반평생을 미국에서 살다가 귀국해서 도시의 건물에 쓰인 간판을 보고, 또 우리 민족의 얼이 담긴 말 중에 너무 많은 영어가 섞여 있음을 알고 급속도로 우리의 고유문화가 바래가고 있음을 느꼈다. 고유한 우리 것 대신 그 자리를 메우고 있는 것은 대부분이 미국을 비롯한 유럽, 일본 등 강대국들의 것으로 한민족으로서의 자존심이 많이 상할 수밖에 없었다. '세계화'가 이렇게 우리 고유문화까지 버리면서 이뤄지는 작업은 결코 아닐 것이다. 이렇게 나가다가는 고유한 우리 것들이 과연 얼마나 보존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뒤따른다. 신문 및 방송 등 언론 매체에 나타난 잘못된 점을 부각시켜서 관련 인사들의 시정을 촉구함이 뜻있는 일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어 우선 부정적 측면만을 지적해보고자 한다.

일부 방송인 및 아나운서를 비롯해 대학교수 등 이 나라의 고유문

화를 보존하고 또 국민들에게 가르쳐야 할 위치에 있는 지식층 인사들이 경쟁이나 하듯 앞장서서, 우리말로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는 단어까지 굳이 영어로 표현하는데, 그마저도 제대로 알지 못해 엉터리 발음으로 시청자들을 오도하는 예는 너무 흔하다. 꼭 그렇게 해야만 자신이 유식한 인물로 비치는 것일까? 오히려 외국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것을 보존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데, 요즘 젊은이들의 문장을 보면 마치 자신이 유식하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듯 요소요소에 영어단어를 집어넣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내게는 유식이 아닌 허영심의 발로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교수님 등 일부 유식한 분들이 긴 의자Sofa(소파)를 '쇼파'라고 발음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영어사전 어디를 봐도 'Shofa' 또는 'Shopa'라는 단어는 찾을 수 없고, 특히 Sofa는 영어 단어 중 가장 쉬운 것 중의 하나다. 또 Golf를 '골프'라고 발음하는 수준을 보면서 이런 인사들을 강사로 초빙하

거나 글을 쓰게 하는 언론사 관계자가 원망스럽다. Sofa가 '쇼파'라면 왜 Golf는 '골프'라 발음하지 않는가. 결국 '쇼파'를 영어로 어떻게 쓰는지도 모른다는 말 아닌가?

'가리키다'(지시하다)와 '가르치다'(교육하다)의 차이도 몰라서 '가르키다'(가르치다의 잘못)라는, '국어사전에도 없는 단어'를 만들어 사용함으로써 시청자인 일부 국민들은 그것이 바른 표현인 것으로 받아들여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는 심각성을 이 분들이 과연 언제 깨달을까? '잊어버리다'(망각하다)와 '잃어버리다'(분실하다)를 구별하지 못할 뿐 아니라, '새벽'이라는 단어는 '동트기 전의 이른 아침'인데도 한밤중 12시 5분을 '오전 12시 5분'이라고 하지 않고 '새벽 영시 5분', 오전 1시는 '새벽 1시'로 표현하고 있으니 이제 우리 국어사전에 '새벽은 밤 12시부터 이른 아침까지를 가리키는 단어'라고 고쳐 실어야 할 때가 온 것인가?

최근 상영되고 있는 새 영화 안 내를 하면서 아나운서가 '\*\*영화가 오늘 전국 영화관에서 상영한

다'고 해서 깜짝 놀랐다. 영화가 어떻게 영화를 상영할 수 있을까? 물론 '\*\*영화가 오늘 전국에서 상영된다'가 바른 표현이다. 입장권을 세면서 한 장, 두 장, 석 장, 네 장 하지 않고 '한 매, 두 매, 세 매, 네 매'하는 어처구니없는 방송인들을 볼 때 우리 국어교육에 큰 문제가 있음을 실감했다.

'장'과 같은 뜻의 '매'를 쓸 때는 '한 매'가 아닌 '일 매' '이 매' '삼 매'로 써야 한다. 아나운서가 이 정도 일 때 일반인들의 국어 실력은 어느 정도겠는가. 그 외에도 잘못된 예가 너무 많다. 방송위원회나 국립국어원은 말할 것도 없고, 문화부 기자나 방송PD 및 아나운서들이 이런 점을 못 본 척 지나치거나 스스로 실수하고 있기에 우리 고유의 아름다운 말과 글은 나날이 변질돼가고 있다. 이제는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

\*필자는 시인 영랑 김윤식선생의 자제분으로 보도국에서 일했으며 현재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입니다.(편집자 주)

## 경·조사

## ■ 구순 ■

조부성 8월15일      김용현 8월23일      이상순 9월10일

## ■ 팔순 ■

서상웅 8월2일      이종모 8월10일      노성대 8월13일  
강성구 9월12일      송세원 9월16일      김창제 9월20일  
유행남 9월24일

## ■ 고희 ■

이형균 8월4일      이창우 8월11일      이현우 8월14일  
안영제 8월15일      정수열 8월20일      최동윤 8월27일  
경진근 8월31일      윤남현 9월1일      유시복 9월12일  
김택곤 9월19일      김종관 9월29일      구자걸 9월30일

## ■ 회갑 ■

권재홍 8월20일      김종진 8월24일      김철진 8월29일  
강인숙 9월6일      정호식 9월12일      김필환 9월16일  
이운하 9월28일

## ■ 결혼 ■

정성만(보도) 차남 6월30일      김상균(보도) 장남 7월6일  
양진수(ANN) 장남 7월7일

## ■ 부음 ■

양건승(업무) 장모상 6월7일

## 회원 / 회비관리

## ■ 신규입회 ■

김재홍(관리) 경기 파주시 청암로 28  
이종현(편제)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4길 42

## ■ 연회비 ■

5월:

김형국('17-19) 한웅희('19) 박완주('17-19) 이대교('19) 전용수('20)  
강찬임('18-20) 정영웅('19) 신승훈('11-16) 백재인('18-19) 조은국('18-19)  
권상규('19) 이진섭('18-19) 임정봉('18-19) 이오기('19)

6월:

방운식('19~20) 오주환('19) 조준희('19) 김재홍('19) 이종현('19)  
정진민('19) 임영규('19) 김광백('17-19) 황기찬('19)

## ■ 평생회비 ■

남정우(기술) 01/21      김태현(편제) 01/22      오정훈(관리) 01/23  
지수환(관리) 01/24      정우석(보도) 02/11      함윤수(편제) 02/18

## 번호 / 주소 변경

임원: 신정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판교로 165  
편제: 김인규 경기 용인시 기흥구 기흥역로58번길 78  
보도: 최노석 서울 동대문구 제기로4다길 18(제기동)  
기술: 노승화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8로148번길 8-15  
업무: 최창업 서울 관악구 난곡로 55(신림동)  
관리: 김현국 서울 구로구 항동로 43 (항동, 하버라인 3단지)  
정경태 경기 고양시 덕양구 충장로 2 (행신동)118-30  
부산: 정판식 부산 남구 신선로 566

## 사우회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사우회는 회원님들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침 9시 반부터 오후 5시 반까지 문은 항상 열려있고, 맛있는 차와 음료가 준비돼있습니다.

오다가다 들르셔도 좋고 일부러 오신다면 더욱 반가울 것입니다. 하루 종일 사우회 만을 생각하는 사무처 직원들에게 격려의 말씀이나 아이디어를 주신다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手談’에 몰두하는 회원들과 ‘열공하는 동호회 회원들’을 보실 수 있지만, 무엇보다 오래 못 만났던 반가운 얼굴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 차 회장, 신입 회원들과 간담회

차인태 회장은 7월 9일 사우회 회의실에서 2019년 신입 회원들을 환영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1월부터 6월 말까지 입회한 18명의 회원 중 6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차 회장은 ‘낯익은 얼굴들을 다시 보니 더욱 반갑다.

계속 새로운 회원들이 들어와 사우회가 한층 더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이어 오찬을 같이 하면서 차 회장은 신입 회원들의 건의사항들을 경청하고 반영할 것을 약속했다. 사우회장이 신입 회원들과 만나는 모임은 역대 처음 있는 일이다.



## 회비와 발전기금계좌

회원들께서 보내주시는 연회비는 사우회 운영과 경조비로 사용되며, 발전기금은 사우회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필요한 경비로 쓸 예정입니다. 사우회를 아끼는 마음에서 금액에 상관없이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비 납부와 발전기금에 관한

정보는 사우회 홈페이지(mbcsau.com) 또는 사무처(722-7416)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납부계좌: KEB하나은행  
158-890070-294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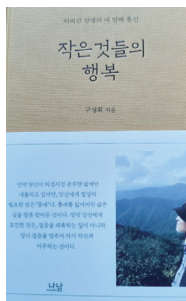
MBC사우회

## 회/원/동/정



## 구영회(보도)

네 번째 에세이 《작은 것들의 행복》을 펴냈다. 지리산에서 지내며 깨달은 ‘일상에 대한 사랑’ ‘만남과 나눔의 기쁨’ ‘영혼의 안식’을 감성적인 문체로 펼친다. 아름다운 지리산 풍경 사진들도 실어 도시에서 느낄 수 없는 전원생활의 낭만과 서정을 선사한다.



## 박수부(업무)

7월 1일 오전 밀레니엄 서울 힐튼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국제로타리 3650지구 2019~20년도 총재 취임식을 가졌다. 3650지구는 78개 로타리클럽 2,200여명의 회원을 보유한 한국로타리의 종주지구이며 서울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민간 국제봉사단체다.



## 동/호/회/소/식

## 인사동클럽(회장 이견세)

6월 3일 프레스센터 엠바고룸에서 2/4분기 모임을 가졌다. 투병 중에도 왕립해주신 서규석 고문님을 비롯해서 15명의 회원들이 참석해 서로의 근황을 소개하고 지난날을 회고했다. 김진희 회원은 젊은 시절 곁에서 지켜본 서규석 선배님의 멋진 모습을 실감나게 들려줘서 박수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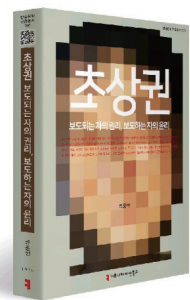
## 문광회(회장 황귀철)

광고인들 모임인 문광회는 6월 13일(목) 12시를지로 4가 ‘임실한우촌’에서 정기모임을 가졌다. 회원 14명이 참석하여 올 상반기를 결산하고 하반기 일정을 협의했다. 아울러 7월 1일 국제로타리 3650지구 총재로 취임하는 박수부 회원을 축하해 주었다.



## 류중현(보도)

〈초상권-보도되는 자의 권리, 보도하는 자의 윤리〉를 출간하고 6월 21일 교보문고에서 북콘서트를 열었다. 초상권에 관한 판례는 물론, 인공지능사회에서의 초상권 문제까지 정리했다. 2010년에는 〈기자과 변호사가 함께 쓴 초상권 이야기〉도 출간했다.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김상균)는 7월 8일, 26년간의 여의도 생활을 정리하고 상암동에 새 사무실을 마련했다. 최근 10년간 자리했던 ‘울촌빌딩’의 주변 환경이 급변함으로써 직원들의 사무환경 개선이 절실했던 차에 DMC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MBC건물과는 상당한 거리에 있는 방문진의 새 주소는 ‘서울시 마포구 매봉산로80 파크엠 11층’이며 전화번호는 종전과 같다.

## 형! 전주술소를 기억 하시나요?



## 안 홍 엽(전주)

친구야/너는 나에게 별이다/  
하늘 마을 산자락에/망초꽃처럼 흐드러지게 핀 별들/그 사이의 한 송이 별이다  
시인 박두순이 친구를 향해 읊은 그 풋풋한 찬사처럼 형들은 나에게 잊히지 않는 별들입니다. 아마 형들도 전주에서 받은 인상을 쉽게 지울 수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전주가 아니면 의미가 없다고 전주는 고집했고 문화방송은 그 뜻을 가상하게 받아드렸었죠. ‘사습’이라는 말처럼 홀로 그 외로운 수련의 길



역대 대사습여류명창들과

을 걸어야 했던 국악인들에게 문화방송은 희망을 선물했고, 더불어 문화방송은 새로운 이미지를 국민에게 심었습니다. 그래서 사습대회를 우리 것으로 하기 위해 사생결단을 했습니다. 신준우 형은 사보의 “남기고 싶은 이야기”에서 그때의 기록을 적었습니다. 이 일로 상대국의 담당 국장은 인사 조치를 당하는 아픈 사연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예선부터 본선까지 온종일 생방송으로 전국에 중계되었으니 아마도 지방 행사가 이처럼 대우받기는 전무후무하리라 생각합니다.

편성국장 故김광수 형의 열정은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제9회 대회부터 심사위원으로 전주에 오셨던 차재영, 표재순, 이대섭, 김현철, 장두원, 임성기, 이연현, 김진희, 이금희, 민창환, 심상수, 유수열, 유길촌, 이재휘 등 여러 형들은 전공도 아닌 국악 심사를 하시느라 많은 땀을 흘렸습니다.

김상옥 형은 서울과 전주를 잇는 든든한 가교였습니다. 진필호, 구종희 형은 연출 담당으로 매년 유

월에는 전주사람이 됐습니다. 50회 대회를 바라보게 된 『전주대사습대회』는 많은 변화를 거쳐 이젠 전주 한옥마을 잔치로 됐습니다. 형들이 기억하는 것처럼 故최규철 사장과 임병찬 사장은 대사습대회를 우리 것으로 만든 일등 공로자입니다.

1968년 직할국 근무를 조건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입사한 저희 16명은 MBC TV 1기에 해당되는 기생期生이었지만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저는 변현규 부장의 R제작 2부에서 김진희 PD의 지도로 6개월 동안 연출을 익혔고, 대사습대회 전주국 기획PD를 인연으로 형들을 만났습니다.

봄, 가을로 전국을 순회하며 열렸던 프로그램 개발회의와 제작 실무를 통해 만났던 김창제, 장명호, 김정환, 최호룡, 박영일, 김일수, 정수열, 이기호, 박병선 등 라디오의 친구들은 지금도 소식이 오고 갑니다. 대구 김상호, 배조한, 대전 서병규, 이중기, 광주 박보용, 김용해 등



15회 대사습장원들과 대회임원 전주mbc임원들

입사 동기 몇 사람과는 가끔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휴일이면 국악 한마당이 펼쳐지는 전주 한옥마을은 젊은이들이 펼치는 한복 퍼레이드가 장관입니다. 연간 1천만 관광객이 북적거리는 한옥마을은 생전에 한 번은 꼭 봐야 할 첫 번째 관광지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오신다면 반갑게 마중하겠습니다. 저는 박두순의 별을 좋아해 별을 담아 몇 권의 책을 냈고 문인협회 회원으로 글 쓰는데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별로 남아 있을 형들의 안부를 궁금해 하며 소식을 전합니다.

친구야/숨길수록 빛을 내는 너는/어둔 밤에 별로 떠/내가 밝아진다.

(이)스토리가 있는 사진

## 푸른 신호등의 추억



편 일 평(편제)

1966년, 50KW 출력증강과 함께 정순일 씨가 편성 국장으로 부임하면서 정보화 사회를 여는 '뉴 라디오 시대'를 선언하고 조직을 개편해 '생활방송실(실장 김준철)'이 등장했다. 전화로 모든 정보를 전한다고 해서 '다이알반'이라고도 불렀다.

회사 전화가 몇 대 되지 않았지만 72-7644, 7645를 전용으로 쓰는 특권을 누리기도 했다. 프로그램 개편으로 아침시간 '푸른 신호등'과, 오후 4시간 동안 'MBC 오후의 다이얼'을 신설하여 '2시의 표정'에서는 재치박사 신태민, 언론인 조풍연, 평론가 유한철, 김은우 교수, 한글학자 한갑수 등을 모시고 임택근ANN가 강영숙, 장인숙, 임국희 ANN와 함께 진행했다.

'한밤의 음악편지'로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임국희ANN가 '푸른 신호등'을 처음 맡았다. "푸른 신호등 들어오면 명랑한 거리 희망의 거리..... 오늘도 달린다 푸른신호등" 박재란이 부른 푸른신호등의 주제가는 최동환 PD가 김호길 악단장과 함께 만들었는데 녹음이 늦어져 첫 방송이 시작된 다음 날부터 시그널로 사용했다.

프로그램 시작 초기에 담당PD가 교통체증으로 방송개시에 맞추지 못하는 사고가 나면서 조증출 사장의 특명으로 회사에 한 대밖에 없는 차량으로 서교동에서 임국희ANN를 태우고 내가 살던 홍제동을 거쳐 자하문 고개를 넘어 경북고등학교 담장을 돌아 인사동에 도착했다.

정보중심의 교통방송은 당연히 '생중계'였다. 큐시트와 레코드판을 조정실 엔지니어에게 부탁하고 휴대용 녹음기와 전화선을 둘러메고 남대문 거리로 향했다. 지금 신한은행 본점 부근이다. 전화가 귀하고 아침에 문을

여는 가게가 없어 약국의 전화를 이용했다. 녹음기와 전화선은 특수 개발한 중계 장비였다. 대담자로 나온 시경 교통과장 박동언 총경이 기다리는 동안 이어폰을 꽂는 녹음기 Out 단자에 전화선을 연결하고 레코딩 스위치를 On하고 마이크를 들고 말하면 주변 소음과 함께 생생한 현장소식이 전파를 탔다.

이를 FM중계차라고 불렀고 FM 1, 2호차로 확대됐다. 한 번은 전화선을 전선에 잘못 연결해 녹음기 회로가 타 버린 사고가 있었다. 정보와 화제, 음악이 있는 이 같은 포맷은 MBC 라디오의 고유 브랜드로 '싱글빙글쇼'를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어졌다.



좌로부터 최규철, 최동환, 편일평, 임국희, 김준철, 장인숙, 최 원, 박종민

## 처음이자 마지막 &lt;미스MBC 선발대회&gt;

1981년 창사20주년 기념 '미스 MBC 선발대회'가 열렸다. '컬러 TV시대에 맞는 TV스타를 발굴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이었다. 실제로 이들 중 몇 사람은 14기 탤런트로 입문했다. 19계 계열사에서 1,2차 예선을 거쳐 올라 온 미녀들을 대상으로 11월 22일 문화체육관에서 본선을 치렀다.

사회는 이덕화와 김보연. 쏘처럼 진행된 선발대회에서 미스MBC 임지영, 準미스MBC 김 청과 이휘

향, 장려상에 홍진희, 김혜정, 윤선자, 오혜영, 정은숙 등 5명이 뽑혔다.

準미스MBC 김 청은 몇 년 후 이덕화와 '토요일 토요일 밤에'를 함께 진행했다. 서울예전 재학 중 準미스MBC로 뽑힌 이휘향은 화려한 외모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김혜정은 '전원일기'에서 복길이 엄마로 출연했다. 유독 '미스MBC 임지영'만은 연기자 생활을 계속하지 않았다. 이 행사가 1

회로 끝난 걸로 봐서 내, 외부의 평가가 좋은 편은 아니었던 것 같다. 알만한 분들에게 물어봤지만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 이가 없다. 5공 당시였던 걸 감안해볼 때 낙하산 사장들의 엉뚱한 발상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었을까 짐작할 뿐.



## 작은 것들의 행복



구영회(보도)

### ▶ 함께 했던 세월도 지나고

오랜 세월 함께 했지만 지금은 각자 흩어진 채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뜻하지 않게 맞닥뜨

리는 곳이 있다. 결혼식장이다.

대학선배이자 직장선배로 별명이 ‘육쟁이’인 형님에게서 청첩장이 왔다. 아들 결혼식이었다. 젊은 시절 약 30년간 함께 일했던 본인 데다 입은 겹쪽해도 호쾌하고 인정 많은 선배였기에, 나는 먼 길 마다 않고 지리산에서 달려가 서울 결혼식에 참석했다. 이런저런 인연 깊은 사람들이 하객으로 모여드는 곳이 결혼식장인지라 ‘오늘도 또 누군가 아는 사람들을 만날 테지’하면서 예식장 엘리베이터 앞에 섰다. 문이 열리고 아니나 다를까 후배 A와 B가 벌써 눈도장을 찍고 서둘러 나선 듯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 틈에 보였다. 그들은 나를 알아채지 못하고 지나쳤지만 나도 아는 체하지 않았다. 내가 그들을 불러 세우면 형식적인 인사치레를 나누다가 서로 불일만 지체될 뿐이란 걸 잘 알기 때문이었다.

그때 등 뒤에서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선배 C와 D였다. 우리는 같은 엘리베이터에 올라 탈 참이었다. 같은 시간 비좁은 같은 공간에서 맞닥뜨렸으니 이번엔 내가 먼저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두 선배도 깜짝 놀라며 반색했다. 엘리베이터가 7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우리 셋은 짧게 서로 근황과 안부를 주고받았다. 과거 프랑스 특파원을 지냈던 C선배는 ‘잘 지내시냐’는 나의 인사에 예전 그답게 대답했다. ‘폼므 다뽀띠드’comme d’habitude. 그러더니 자기 말을 이번엔 영어로 통역까지 했다. ‘애즈 유주얼’as usual. 그냥 고만고만하게 평소대로 잘 지낸다는 뜻이었을 것이다. 그 짧은 순간에도 그에게서 뭔가 항상 멋스럽게 자기를 포장하는 매끄러운 거품이 느껴졌다. 나는 말없이 빙그레 웃었다. 또한 명 선배 D 역시 예전 그답게 간결하게 한마디 던졌다. “요즘도 지

리산에 계속 있나?” 내 대답도 간결했다. “네, 갈수록 점점 더.....” 펍 오랜만에 마주 친 우리 세 사람 사이의 다소 어색하고 짧았던 대화는 7층 예식장에 엘리베이터가 멈추면서 끝났다. 혼주와 신랑에게 축하인사를 하고, 축의금을 내고, 이미 와있던 지인들과 또 인사를 나누는 각자의 상황으로 쪼개졌다.

결혼식이 시작하려면 아직 시간 여유가 있었지만, 나는 곧장 그 자리를 빠져 나왔다. 더 머물러 봤자 오랜만에 마주치는 여러 사람들과 형식적인 인사치레를 하고, 별 내용 없는 수다를 떨게 될 상황이 불보듯 뻔해서 그냥 서둘러 자리를 뜬 것이었다. 밖으로 나와 길을 걸으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과거 직장에서부터 30년 넘는 세월을 한 술밥 먹으며 함께 지냈던 인생길의 큰 인연들을 다시 만났다. 하지만 세월이 흐른 지금 이렇게 우연히 맞닥뜨리는 것 외에 특별한 교류가 이어지지 않는 저 인생들은 지리산에 머무는 나와 별다른 연관성이 없다. 이런 깨달음에 이르자 웬지 삶의 무상함과 무심함이 뭉뚱그려진 서늘한 감정이 스쳤다. 과거는 지나갔고 나는 그냥 지금이라는 좌표에 놓여 살고 있을 뿐이다. 저 인생들이 지금의 나에게 별로 얹혀있는 게 없듯이 나 또한 그들에게 깊은 관심의 대상이 될 리 없을 것이다. 화자정리會者定離라고, 만났던 꼬트머리에선 다시 헤어질 수밖에 없는 이치인 것을..... 그리고 보면 인생길에서 만남의 의미란, 함께 했던 그 순간이 절정이자 마지막일 것이다. 과거는 붙잡거나 되돌릴 수 없는 저 너머로 사라졌고, 현재는 오로지 지금이 순간 속에서만 확인될 뿐이다.

내가 다시 산자락 구들방에 놓인 오늘은 절기상 우수雨水다. 신통하게도 우수인 오늘 새벽부터 꽤 굵은 빗줄기가 오전 내내 산천을 적셨다. 저 빗물이 대지에 스며들면 겨우내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이제

다음 절기 경칩驚蟄이 닥칠 것이다. 24절기가 쉼 없이 순환하면서 삶의 모든 현재들을 과거로 만들고 있다. 비가 그친 모양이다. 산비둘기 울음소리가 들린다. 아침에 아궁이에 넣었던 장작이 잿더미가 된 덕분에 구들방 방바닥이 이제 따스하다.

### ▶ 국밥 한 그릇에

어떤 관찮은 생각이 앞뒤 맥락 없이 불쑥 솟구쳐 그 생각대로 한 일의 결과가 만족스러울 때 기분이 썩 좋아진다. 점심때가 훨씬 지난 늦은 오후, 약간 출출함을 느끼던 참에 그 생각이, 비록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난 것인데도 누가 선물한 것처럼, 썩 관찮은 아이디어로 여겨지자 나는 곧바로 실행에 착수했다.

국밥 한 그릇 먹자고 왕복 80Km에 고속도로 이용료가 3,600원이나 되는 순천땅 아랫장터 그 국밥집으로 향했다. 마침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시장은 사람들로 북적거리 혼자 국밥 한 그릇 챙기러 달려온 나를 심심찮게 해줬다. 평소 특별한 볼 일이 없어 도 전통 재래시장을 이곳저곳 찾아다니면서 서민들

살아가는 모습들 속에 섞이기를 좋아하는 편이다. 하지만 이날은 내가 지내는 이곳 구례를 마다하고 왜 순천까지 간 것인지 나도 연유는 잘 모르겠다. 과거 한두 차례 맛봤던, 칼칼하고 정갈한 국물에 부드러운 돼지고기의 맛깔스러움이 내 감각세포에 긍정적으로 입력돼 있었기 때문일까. 아무튼 발걸음이 그 맛집으로 홀린 듯 옮겨졌다.

약간의 시장끼도 있었지만, 음식 별로 밝히는 일 없고 입맛도 쏙은 편인 나를 그 국밥은 역시 배반하지 않았다. 요즘 말로 ‘혼밥’이었지만 동행이 없어도 국밥은 내 입맛을 만족스럽게 사로잡았다. 먹다가 문득 여러 해 전에 서울의 옛 직장 후배가 출장길에 순천을 지난

다면서 ‘운전기사와 둘이 가볍고 소탈하게 요기할만한 집을 소개해 달라’는 전화를 받고 바로 이 집을 소개해줬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 그 후배도 식사 후 ‘정말 맛있게 먹어 고맙다’는 카톡 메시지를 보냈었다. 아무튼 모처럼 타지로 나가 큰돈 안들이고 영양보충 제대로 한 것 같은 만족감에 기분이 좋아졌다. 가끔 관찮은 궁리를 해내는 나 자신을 자화자찬하면서.....물론 8,000원짜리 국밥 한 그릇 먹자고 왕복 80Km 기름값에, 1시간 20분가량을 손수 운전하는 수고에, 고속도로 사용료 3,800원을 들이는 것이 경제적으로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계산이 나올지 모른다. 그러나 자기 만족감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으니 그냥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국밥 한 그릇의 그 시작과 여운을 합친 모든 과정은 내가 또 하루를 살아가는 하나의 이벤트다. 내가 나를 스스로 호강시켜 주지 않으면 누가 대신해주랴. 이렇듯 남에게 패 끼치는 일 없이 스스로를 잘 챙긴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자신이 대견하다. ‘사람 많이 다듬어졌다’는 자기평가를 내려도 무방하리라. 돌아와 다시 구들방 이불 밑에 손을 넣어보니 아까 외출 전에 장작불 피워놓은 온기가 따끈하게 전해진다. 밖을 내다보니 어느새 어둑어둑 땅거미가 내려앉았다. 오늘 하루는 또 이렇게 저물어 간다.

나는 시간을 벗어나 사는 것일까, 아니면 시간 뒤에 놓여 시간에 나를 내맡기며 살고 있는 것일까. 그 어느 쪽이든 내일 아침 해가 뜨면 또 이렇게 저렇게 하루를 살아야겠지. 내게 남은 다른 방도는 없다. ‘왜 사냐’고 누가 묻는다면 ‘그냥 산다’고 할 수밖에.

연두색 예쁘디 예쁜 조막만한 산새가 보금자리로 들어가기 전에 구들방 앞 화단에 심어놓은 키 작은 매화나무 가지에 푸르름 날아들어 그 밑에 내다버린 사과껍질로 하루의 마지막 배를 채우는 광경이 눈에 들어온다. 이름 모를 새야, 내일 또 만나자. 매화는 이제 한 달 안에 꽃을 피우려나. 사방이 고요한 산자락의 오후다.



## 미수米壽에 떠오르는 상념想念들



김세중(관리)

1932년생이니 우리 나이로 88세. ‘함흥냉면’, ‘함흥차사’로도 유명한 함흥시 운흥리가 내 고향이다. 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11월 24일, 중학교를 갓 졸업한 19살의 나이로 함경북도 성진에 있는 국군 제1군단에 지원했다. 하사관학교를 마치면 향토방위 근무를 한다는 조건에 끌렸기 때문이다. 전사라서 사격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일주일 만에 배를 타고 함흥 서호해수욕장 인근 마전으로 후퇴했는데 12월 초 중공군이 개입하고 연합군의 함포사격으로 함흥시가지가 불바다가 됐다. 그래서 우리 부대는 또다시 묵호로 후퇴했다. 1951년 1월, 포항을 거쳐 대전에 도착, 창설된 880부대에 배속돼 M1총과 실탄을 처음으로 지급 받았다.

부대는 최종적으로 문경에 정착해서 나는 3중대 3소대 연락병이 됐다. 문경 희양산 아래 봉암사라는 절 인근에 있는 민가에 취사장을 만들고 일주일 간 먹을 식량과 3.5인치 로켓포탄 등 보급품들을 보관한 뒤 부대는 산 속에 진지를 구축했다. 다음 날 새벽 3시쯤 ‘연락병을 찾는다’는 전갈을 받고 중대장에게 갔더니 ‘지금 우리 취사장에 후퇴하던 적 패잔병들이 들어와 식량과 무기를 탈취하려 하니 즉시 소대장에게 연락하라’고 했다. 소대까지 가려면 그 집을 통과해야 해서 집 뒤편 소나무가 뽕뽕하게 차있는 오솔길로 달려가고 있는데 반대편에서 적군 20여명이 우리 물품들을 지고 골짜기를 올라오고 있었다. 진퇴양난. 피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사원연수(덕평)

젊은 혈기로 적들을 향해 무작정 사격을 해버렸다. 예상치 못한 사격에 놀란 적들은 지고 있던 식량들을 팽개치고 도망가기 바빴다.

내 위치가 노출된지라 급히 이동해서 근처에 있는 구덩이로 들어갔는데, 어느새 따라 왔는지 바로 뒤에 적 한명이 보였다. 달빛에 비친 빨간 바탕에 노란 줄 세 개가 그려진 계급장을 보며 버릇처럼 “정지, 암호!” 했더니 어제 날자의 암호를 대는 게 아닌가. 반사적으로 사격을 했고 적은 쓰러졌다. 인생 최초의 전투는 그렇게 시작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적의 총에도 실탄 세발이 장전돼 있었고 내가 쏘지 않았으면 적이 나를 쏘을 상황이었다. 간담이 서늘했다. 알고 보니 적들은 취사병을 협박해서 이미 우리의 암호를 알아냈던 것이다. 어떻게 식량과 포탄을 지킬 수 있었고 나는 그 일로 일 계급 특진과 화랑무공훈장, 보름동안의 포상휴가를 받았다.

1955년 1월, 제대를 했지만 취직하기도 쉽지 않았다. 학교에 다닐 때 러시아어 공부를 열심히 했었던 관계로 그 공부나 더 해볼까 해서 을지로 국립중앙도서관 앞에 있는 책방에 갔는데, 점원이 ‘러시아어 책을 찾는다’는 나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다. 아마도 ‘전쟁도 끝났는데 왜 러시아어를 공부하려고 하느냐?’는 뜻 같았다. 러시아어 책도 찾을 수 없었다. 당시 일찍 남하했던 작은 형님이 피난지 부산에서 체신부 예산과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형님의 알선으로 체신부 인쇄물 입찰에 참여했다. 인쇄물을 낙찰받아 인쇄업체에 나눠주면 필경사筆耕士들이 쓰고(속칭 ‘가리방 굶는다’고 했다) 등사판으로 인쇄해서 납품하는 일인데, 일감이 꽤 많아 친구와 동업으로 했는데도 수입이

적지 않았다. 필경사들의 빠른 손놀림과 예쁜 글씨체를 보면서 장난삼아 따라하다 보니 ‘잘 쓴다’는 칭찬도 들었고, 써달라는 요청도 많았다. 그래서 틈틈이 ‘가리방을 굶었’는데 그게 평생의 직업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입찰 생활 몇 년 동안 잘 벌었지만 총각 시절이다 보니 친구들과 어울려 노느라 돈은 별로 모으지 못했다.

1968년, 인사동에 있는 MBC에서 필경사를 구한다는 소식을 접했다. 컴퓨터가 나오지 않았던 시절, 일부 문서는 타이프라이터로 작성했지만 필경에 대한 수요는 절대적이었다. 프리랜서로 일할 땐 많으면 월 6,7만



아들, 손자와 함께

이 받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도 많이 받았다. 정말 즐겁고 보람차게 일했다.

MBC를 퇴직하고 놀던 중 1990년 5월 사우회가 만들어지면서 부름을 받았다. 처음 시작하는 단체다 보니 글 쓸 일이 많았다. 950명 회원들의 주소록을 일일이 손으로 작성했다. 당시 MBC총무부에서 사우회에 월 50만원씩 지원해줬는데 25만원은 내가, 나머지는 경리 아가씨가 봉급으로 받았다. 초창기 사우회는 돈이 없어서 뭐 하나 제대로 일하기가 어려웠다. 지금 같은 체제를 갖추기 까지 역대 회장들을 포함해 여러 사람들이 애쓰고 노력한 것을 지켜보면서 많이 감사하는 마음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사람들이 지상파보다 다른 미디어를 더 활용하게 되고, 제한된 광고시장에 나타난 종편으로 인해 더욱 형편이 어려워진 본사로부터의 지원이 전 같지 않아, 현 집행부에서 긴급 발의한 발전기금 모금에 옛 동료들, 특히 나처럼 기능직에서 일했던 회원들까지 동참하는 것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하고 주책없이 눈물이 솟는다. 늙으면 작은 감동에도 눈물이 나는가 보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1964년 결혼을 한 몸이라서 안정된 직장을 찾던 중이었고 더욱이 보너스가 120%라는 매력 때문에 두말없이 출근기로 했다. 매일 작성하는 Radio와 TV운행표, 주간 편성표, 인사발령, 당직 근무표 등 일은 엄청 많았지만 MBC라는 회사 분위기가 워낙 화기애애해서 좋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다보니 힘든 줄을 몰랐다.

당시에 시작했던 등산모임과 낚시 모임은 세월이 한참 지난 지금도 매주 계속하고 있다. 1980년, 정권이 바뀌고 사장도 바뀌면서 새로 만들어진 기획실에 차출돼 일할 때는 이른바 ‘대외비’ 문건도 많이 작성했다. 입사시험지 작성을 포함해 휴일도 없이 매일같이 혹사를 시킨 게 미안했던지 당시 이명석 기획실장은 나를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시켜줬다. 1988년,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 직장인 MBC를 퇴직할 때까지 이런저런 표창도 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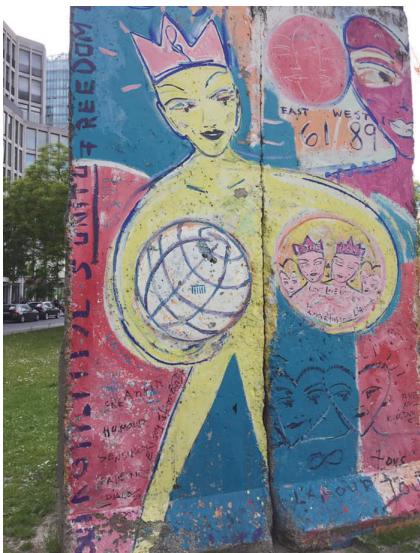
집 떠난 지 70년. 고향 생각과 부모형제 생각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 젊은 시절에는 산에 올라 부모님 생각하며 혼자 통곡하기도 했다. 이산가족상봉 신청을 수차례 했지만 번번이 떨어졌다. 8남매 형제 중(아직 살아 있다면) 세 명이 북쪽에 남아 있는데 죽기 전에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 실향민의 소원은 오직 하나, 다시 고향에 가볼 수 있기를 기원하며 오늘도 산에 올라 북쪽을 바라본다. 과연 통일은 올 것인지....

## 베를린은 기억에 젖은 채, 앞으로



박 찬 순(편제)

포츠담 광장에 있는 한국 문화원을 방문했을 때 권세훈 원장이 안내해준 작은 대문만한 장벽의 일부(예쁜 그림을 그려넣은)는 이젠 양증스런 미술작품이 되어 있었다. 거기서부터 장벽의 연장선을, 거리를 지나 개인의 주방기구 가게 안까지 표시해 놓은 것은 또 어떻게 봐야 할까. 오랜 전통을 지닌 주방기구 가게 주인은 흔쾌히 가게 바닥에 장벽의 흔적을 남기는데 동의했다.



미술품이 된 베를린 장벽의 일부

브란덴부르크 문 밖에도 장벽의 흔적은 거리에 두 줄의 시멘트 벽돌로 새겨져 있다. 기억에 대한 독일인의 철저한 의식. 그뤼네발트역에 있는 17번 선로(Gleis 17)는 또 어떨까. 그 역에서는 나치 시절

5만 명의 유대인이 아우슈비츠가 스실로 실려 갔다는 기록과 함께 그들의 모습을 음각으로 새긴 조각작품이 있고 선로에는 이스라엘 국가가 애잔하게 꽃혀 있다.

옛 동독 지역 린덴 슈트라세에 있는 유대인 박물관은 모든 전시물이 너무 가슴을 짓눌러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는데 17번 선로에선 좀 달랐다.

이렇게 베를린은 기억에 젖어 있지만 거리는 젊은이들의 활기찬 발걸음으로 분주해 보였다. 20년 전 왔을 때와 비교한다면 초등생에서부터 중고생, 대학생, 또는 회사원에 이르기까지 영어 실력이 부쩍 늘었다는 것. 이유를 물었더니 '이유(EU) 덕분'이라고 했다.

다국적 기업 일자리가 많아지고 전 세계 젊은이들이 몰려오다보니 언어소통이 안되면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고속열차에서 만난 베트남 출신 BMW 직원, 지하철에서 만난 벨기에 출신 유로은행원, 베를린 자유대학의 시리아, 터키, 아일랜드, 네덜란드 출신 학생들, 베를린은 정말 국제도시가 되어가고 있었다. 물론 도심 한구석에는 여전히 구걸하는 이들이 있고 노숙자와 경찰의 실랑이가 벌어지고는 있지만 베를린은 기억에 젖은 채, 앞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보였다. 한 때 막연하게나마 내가 꿈꾸었던 세계시민사회로.

베를린 거리 이름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순전히 브레히트 때문이었다. 베를린에 왔으니 적어도 오

페라나 연극 한편 씩은 보고 가야지 싶어 프리드리히 슈트라세에 있는 베를리너 앙상블을 찾아갔다. 브레히트가 창단한 국립극단. 그는 극장과 함께 거리 이름도 하나 남겼다. '베르톨트 브레히트 플라츠(광장)'. 그날 마침 새로 각색한 맥베스를 한다기에 표를 사고 공연 때까지 남은 시간동안 주위를 돌아보고 있을 때였다. 바로 옆 골목에 슈만 슈트라세가 보이고 도이체스 테아터도 보였다. 우리나라에 와서 <도둑들> 공연도 했던 131년 전통의 독일 극단이었다. 보리수가 우거진 공원과 말쑥한 거리에서는 슈만의 <헌정>이 들려올 것만 같았다.

그 맞은편에는 하인리히 뵐 재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국민들의 실생활을 변화시키고자 정치에도 관심이 많았던 작가였다. 그의 이념은 녹색당이 이어받고 있다고 들었다. 다리가 아파 커피나 한 잔 할까 하고 좀 더 큰 길인 프리드리히 슈트라세로 나왔더니 맞은편에 뮤지컬과 각종 쇼 공연장인 '프리드리히 슈타트 팔라스트'가 웅장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몇 발짝 가지 않아 '발자크 커피숍', '오스카 와일드 펍이' 눈에 들어왔다. 베를린의 코스모폴리탄 감각이라고나 할까. 어딘가에서 바르샤바 거리, 멕시코플라츠, 유대인 거리도 본 기억이 났다.

U2로 돌아오는 길에 정류장을 놓치지 않으려고 문자



17번 선로

로 뜨는 지명을 확인하다가 '하인리히 하이네 슈트라세'를 지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운터 덴 린덴'(보리수나무 아래)슈트라세를 갔을 때처럼 왠지 즐거운 기분.

물론 어제 <테리의 지형>이라는 이름이 붙은 게슈타포와 나치 친위대 자리 앞을 거닐 때는 등골이 오싹해왔었다. 한편으로는 역사 앞에 솔직하게 고하고 앞드린 그들이 놀랍기도 했다. 노선도를 펴자 바그너, 슈트라우스, 쉴러, 폰타네, 칸트, 칼 마르크스, 로자 룩셈부르크, 쇼펜하우어의 이름을 딴 거리와 역 이름들이 수두룩 눈에 들어왔다. 상처와 아픔, 부끄러움도 많지만 아름다운 것들도 많다는 자랑일까? 아니 그들을 몹시도 아껴서 일 것이다.



### MBC 사우회 협력기업

#### 달아트투어 추천 여행상품

크루즈 여행  
장강삼협 크루즈  
중국문화기행

#### ● 국내 최초 한/중/일/러 4개국 / 11만4천톤급 세레나호

10월 8일 인천항 출발 | 한/중/일/러 특별 전세선 8일 | 1,980,000원 부터~

인천항 - 상해 - 나가사키 - 블라디보스톡 - 속초항

10월 15일 속초항 출발 | 한/중/일/러 특별 전세선 6일 | 1,780,000원 부터~

속초항 - 블라디보스톡 - 사카이미나토 - 부산항

#### ● 중국 장강삼협크루즈 5일 (물길 따라 떠나는 동양의 산수화)

매주 화,토요일 출발(NO탑/NO음선/NO소핑) 1,590,000원 부터~

아시아나 항공이용 / 인천 - 충칭 - 장강삼협크루즈 - 의창 - 고속열차

#### ● 경향신문 북경특파원 8년, 홍인표 고려대 교수와 함께하는 중국문화기행 3일

1일차 항주/서호 명승사 | 2일차 소흥/노신 왕희지유적 | 3일차 소주/호구출정원 | 980,000원 부터~

품격과 감동을 추구하는 여행기업  
(주) 달아트 투어



▶ 상담문의 02 722 7416 (MBC 사우회) / 02 2038 6668 (달아트투어) [롯데관광크루즈 전문판매점] (주) 달아트투어 대표: 최노석 mbc화우 (문화경향 통합1기)